

한 장 넘기고, 한 번 숨 쉬고, 한 번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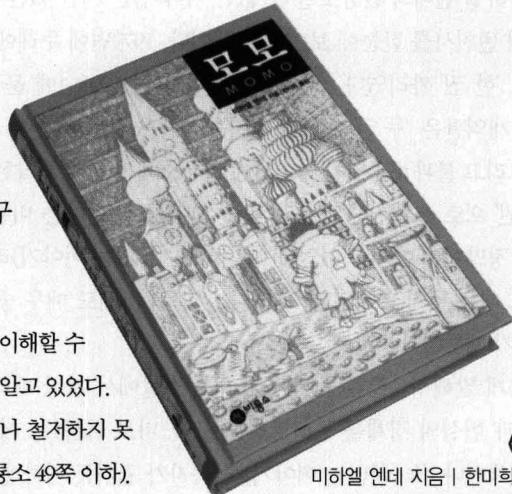
책을 볼 때나 책 읽어주는 것을 들을 때 내용을 이해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책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책이 나를 이해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더구나 우리가 속도로 읽는 실용적인 독서보다도 의미와 치유를 내포한 독서를 선호한다면 말이다. 하루, 이틀, 사흘… 때로는 몇 달, 몇 년 후에 그것이 이해돼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비로소 책은 어떤 불빛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 속에 서게 되고 그 빛의 밝음을 아는 자는 빛의 그림자도 사랑할 수 있다.

글_변학수

말 없는 노인 베포가 나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림자를 사랑하는 자는 곧 그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림자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의 외진 곳에서 도출해 낼 수 있다. 《모모》에 쓰여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런 독서의 과정이 그림처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모모는 달랐다. 모모는 베포가 대답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모모는 베포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베포는, 모든 불행은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거짓말, 그러니까 단지 급하게 서두르거나 철저하지 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거짓말에서 생겨난다고 믿고 있었다(미하엘 엔데 지음, 한미희 옮김, 비룡소 49쪽 이하).



《모모》
미하엘 엔데 지음 | 한미희 옮김
비룡소 | 368쪽 | 값 9,500원

책을 읽는 우리는 삶에 아둔한 사람인 듯 보이는, 말 없는 노인 베포가 나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가 말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그의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그러면 베포의 삶은 나의 빛이 되고 구원이 된다. 베포는 “날마다 해가 뜨려면 아직 먼 이른 새벽에 빼걱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의 커다란 건물로 출근”하는 보잘것없는 노인이다. 도로청소부 베포는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누더기 집도 자기 스스로 지은 집이었다. 그는 유난히 키가 작았고 걷는 자세도 약간 구부정했다. 또한 그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쓸었다. 한 걸음 떼어 놓을 때마다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쉴 때마다 비질을 한 번 했다.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 그러다가 가끔 잠시 멈춰 서서 생각에 잠겨 앞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을 계속하는 것이었다(같은 책, 50쪽).

『모모』는 우리에게 책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한 장 넘기고, 한 번 숨쉬고, 한 번 읽고, 한 장 넘기고, 한 번 숨쉬고, 한 번 읽고… 뒤쪽에 깨끗한 거리를 두고, 앞에는 지저분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베포에게 종종 위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베포는 “그것은 어렵잖이 기억나는 향기나 꿈속에서 보았던 색깔과 같아서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런 베포의 고백은 오아시스를 비추는 별빛이 되어 책 읽는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하게 하고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게 한다. 청소, 청소부의 과거, 베포의 행위, 한 발짝, 숨 쉬고, 비질. 무언가 도저히 서로 만날 수 없는 것들끼리 만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천천히 읽는 법,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

베포는 이렇게 말한다.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중략)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턱탁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베포의 말은 책을 천천히 읽으라는 말인데 필경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숨이 턱탁 막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다시 그 책을 읽는 데만 서두른다면 십중팔구 책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한 장만 읽으면 어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어떤가. 숨은 쉬어야 하지 않는가.

베포의 말대로 한꺼번에 책 전체를, 인생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독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비질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일은 즐거워진다. 독서 또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한 발짝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그 책을 다 읽었는지 모르고 무엇인가를 잊었고, 잊는 순간 무엇인가를 기억해내기 때문이다. 빛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 걸음 옮기

면서, 책 한장을 넘기면서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 순간 우리는 빛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베포의 내면세계와 외모가 이루는 절대적인 차이를 깨닫게 된다.

베포가 모모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걸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실용적 책읽기와는 달리 책이 나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해적 책읽기는 이해되는 빛의 순간 다른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해된다는 것은 빛 속에 있다는 것이고 빛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의 그림자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나는 베포의 모습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다. 그러한 잠시 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일치한다. 나는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독서는 기억을 불러왔고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 나는 못난 과거를 현재에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방법

게슈탈트 심리학은 유기체가 끊임없이 배경으로부터 새로운 전경을 떠올리고, 다시 이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경으로 사라지게 하는 순환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가르친다. 한 예를 들어보자. 한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갈증을 느껴 물을 마셨다. 물을 마시고 다시 공부를 계속하는데 성적표 보여줄 일이 걱정되어 공부가 되지 않았다. 그는 하던 공부를 멈추고 방안을 이리저리 어슬렁거린다. 이 학생은 갈증에 대한 감각이 있어 그것을 자각하고 물을 마심으로써, 에너지를 동원하고 행동으로 옮겨 욕구를 해소했다. 만약 그가 공부에 너무 집중했다라면 갈증을 모르고 공부를 계속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부를 하려는데 성적표에 대한 걱정이 생겨 공부를 중단한 것은 바로 앞의 에너지가 원활히 해소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긴장하게 되면 불안해지므로 숨도 제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공부를 지속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책 읽기를 통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독서는 우리에게 빛을 만나게 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한다.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하듯이, 한 장 넘기고, 한 번 숨 쉬고, 한 번 읽으면. ■■

변학수 님은 경북대학교 독어교육학과와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이다. 저서로 『통합적 문학치료』 『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 『낯선 문학의 해석학적 미학적 경험』 등이 있다.